

전북 현대, 백승호 영입한다... “지원금 반환? 당사자간 문제”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선 백승호를 영입하기로 했다. 전북은 30일 “독일 분데스리가(2부) 다름슈타트에서 뛰던 백승호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백승호는 최근 K리그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원 삼성과 대립했다. 과거 백승호는 수원 유스팀 소속이었다.

과거 수원 삼성에 스페인 유학비 3억원 지원받아 전북 “충분한 시간 있었지만 구단-선수 합의 못해” “자칫 선수생명 중단시 K리그 좋지않는 선례 고려”

로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유학할 때, 유학비 명목으로 수원 구단으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K리그 복귀시 수원 입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북 입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인지한 수원 구단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 측은 입단을 약속한 합의서 위반에 대한 사과와 지원금 외에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은 앞서 백승호가 K리그 복귀시 수원 입단을 약속한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영입을 추진했다. 이후 수원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내용을 통보받고 영입 계획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은 “선수등록 마감일이 31일로 종료되고 수원 입단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K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백승호가 무사히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입을 결정했

다”며 “선수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프로축구연맹의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한달 넘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20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팀 입단 당시 지원받았던 유학비 반환 문제를 놓고 선수등록 마감일 직전까지 선수와 구단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과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칫 선수생명이 중단된다면 K리그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유했다. 또 “수원이 최근 백승호 측에 보낸 문서에 ‘백승호 선수 영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수원 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이후 영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덧붙였다. 백승호 측과 수원 구단의 법정 공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북은 지원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이는 추후 백승호 측과 수원 이해당사자가 풀 문제”라고 했다. 백승호는 유소년 시절 명문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주목받았다. 연령대별 대표팀을 거쳤고, 국가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2017-2018시즌부터 두 시즌 동안 스페인 2부 지로나와 페랄라다에서 뛰다가 2019-2020시즌부터 다름슈타트로 옮겼다. 45경기에 출전해 3골 6도움을 기록했다. 전북은 “중원에서 더욱 안정된 미드필더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스

허웅·허훈 형제, 프로농구 인기투표 압도적 1·2위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형제 선수 허웅(DB)과 허훈(KT)이 인기상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3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최고 인기 선수를 선정하는 ‘포카리스웨트 인기상’ 중간집계를 알렸다. 허웅이 1만8071표로 1위,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수상자 허훈이 1만3581표로 2위에 자리했다. 지난 시즌에도 인기상 투표에서 1위

를 차지한 허웅은 2년 연속 최고 인기 선수 자리를 기대하게 됐다. 허훈은 이번 시즌 올스타 팬 투표에서 1위에 올랐다. 둘은 최근 아버지 허재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며 인기몰이 중이다. 창원 LG의 이관희(5382표), 서울 삼성의 김시래(3018표), 전주 KCC의 송교장(2796표)이 뒤를 잇고 있다. 인기상 투표는 다음달 5일 오후 6시 까지 진행된다. KBL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농구 허웅(왼쪽)과 허훈 (사진 = KBL 제공)

양현중, 밀워키전 2이닝 3볼넷 2실점...ML 입성 빨간불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서 부진

메이저리그 입성을 노리는 양현중(33·텍사스 레인저스)이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에서 부진했다. 양현중은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시범경기에 구원 등판해 ⅓이닝 1피안타 3볼넷 2실점으로 무너졌다. 투구 수는 27개. 이중 스트라이크는 11개뿐이었다. 양현중의 시범경기 성적은 5경기 10이닝 6실점 평균자책점 5.40이 됐다. 앞선 4차례 등판에서 사사구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날 볼넷 3개를 내주며 제구 불안을 드러냈다. 출발부터 흔들렸다. 양현중은 2-0으로 뒤진 6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양현중은 선두타자 크리스티안 옐리지를 볼넷으로 출루시켰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연달아 볼 4개를 던졌다. 후속 아비세일 가르시아와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는 모두 외야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그러나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낸



텍사스 레인저스 양현중(왼쪽)이 29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시범경기에 0-2로 뒤진 6회 초 구원등판, 회를 넘기지 못하고 공을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에게 넘기고 있다. 양현중은 ⅓이닝 동안 1안타 3볼넷 2실점하며 1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뒤 다시 제구가 흔들렸다. 양현중은 2사 1루에서 로렌조 케인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오마르 나바에스에게도 2스트라이크를 선점한 뒤 볼 4개를 연속으로 던져 2사 만루에 몰렸다.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양현중은 올랜도 아리아스에게 2구제 체인지업을 공략 당하며 2타점 2루타를 맞았다. 텍사스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다.

양현중은 지미 허جت과 교체돼 마운드를 내려왔다. 승계주자가 홈을 밟지 않아 양현중의 추가 실점은 없었다. 텍사스와 스프링 계약을 맺은 양현중은 아직 개막 로스터 진입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양현중이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메이저리그 입성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KIA 클래식 제패한 박인비, 세계랭킹 2위 도약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1승을 달성한 박인비가 세계랭킹 2위로 도약했다. 박인비는 30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8.25점을 얻어 지난주보다 두 계단 상승한 2위에 자리했다. 박인비는 지난 KIA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로 2위 그룹을 5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2월 호주여자오

픈 이후 13개월 만이자 투어 통산 21번째 쾌거였다. 새 시즌 첫 대회부터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기량을 입증했다. 세계랭킹을 2위까지 끌어올린 박인비는 2020 도쿄올림픽 진출에도 바짝 다가섰다. 도쿄올림픽에는 6월 말 기준 세계랭킹으로 결정된다. 15위 이내에 같은 국가 선수들이 몰려 있을 경우 국가당 최대 4명까지 나설 수 있다. 현재 박인비보다 앞선

이는 세계랭킹 1위 고진영(9.45점)뿐이다. 김세영(7.61점)이 한 계단 떨어진 3위에 자리하면서 태극 남자들이 1-3위를 휩쓸었다. 9위 김효주(6.15점)를 포함해 톱10에 진입한 한국 선수는 총 4명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4명의 도쿄행이 유력하다. 박성현(4.12점)과 이정은(3.84점)은 각각 12위와 13위를 기록했다. 뉴스

“류현진은 류현진, 토론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현지언론들, 키플레이어로 꼽아 “꾸준함의 대명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에이스 류현진(34)의 존재감은 대단하다. 현지 언론들은 올 시즌 토론토의 키플레이어로 류현진을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MLB닷컴도 30일(한국시간) 토론토의 2021시즌을 예측하면서 팀 내에서 류현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크다

고 평가했다. 올해 토론토 내에서 사이영상 수상자를 정하면 류현진이 것이라고 평가한 MLB닷컴은 “류현진은 토론토 로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전했다. 이어 “류현진이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면 토론토의 선발 로테이션은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꾸준함의 대

명사”라면서 지난해 토론토에서 보낸 첫 시즌에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하고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토론토 선발진에서 류현진 외에 믿을만한 투수가 없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류현진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다. MLB닷컴은 “류현진은 류현진”이라면서 “하지만 토론토 선발 로테이션에서 2-5선발은 몸값이 높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로비 레이와 스티븐 매츠가 시범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즌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류현진과 원투펀치를 이뤄줄 것으로 예상했던 강속구 유망주 네이트 피어슨과 또 다른 선발 자원인 토머스 해치는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다. 토론토는 시즌 초반 테너 로어크와 로스 스트리플링으로 빈 자리를 메울 전망이다. MLB닷컴은 “로어크와 스트리플링은 ‘선발 투수’지만 올 시즌에는 다른 의미가 될 것이다. 토론토가 162경기를 소화하면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볼펜 투수를 많이 기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야구 10~30% 관중 내달 3일 개막...비디오판독 확대

부상자명단 등록 선수, 최소 10일 지나야 복귀 가능

2021시즌 프로야구가 다음달 3일 막을 올린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개막을 맞았던 지난해와 달리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따라 현재 2단계인 수도권 잠실, 문학, 수원, 고척은 10%의 관중을 받기로 했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사직, 대구, 창원, 광주, 대전은 30%의 관중 입장으로 시즌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KBO는 올 시즌 달라진 KBO리그 규정도 소개했다. 먼저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가 늘어난다. ①공야구 규칙

5.08(a)에 의거한 3아웃 이전 주자의 득점 ②주자의 누의공과 ③주자의 선행주자 추월 ④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 태그업할 때 일찍 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 대해 비디오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단 신청에 의해 심판 판정이 정규이닝에서 2회 연속 반복될 시, 해당 구단에 정규이닝에 한해 1회의 추가 비디오 판독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 코칭스태프 지원을 위한 통역 인원도 증원한다. 선수들의 효율적인 소통을 돕기 위해 기존 3명으로 제한했던 더그아웃 통역 인원을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상자 명단 등재 기간도 손뻗

다. 올해부터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는 최소 10일이 경과 돼야 엔트리에 복귀 가능하다. 다수의 부상 선수들이 엔트리에 조기 복귀하는 등 부상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제도를 보완했다. 특별 서스펜디드 및 더블헤더 경기 특별 엔트리도 운영한다. 도쿄올림픽 기간 중 휴식기를 갖는 KBO리그는 팀당 144경기 완주를 위해 4월13일 이후 최소 경기부터 더블헤더를 실시한다. 아울러 작년과 동일하게 정식경기 성립 전 우천 등의 사유로 경기 중단된 경우 다음 날 특별 서스펜디드 경기로 진행한다. 이 때 구단은 1명의 선수를 추가로 엔트리에 등록할 수 있다. 뉴스

